

## 인터넷 세계 박람회 '96 개최

김 흥 권 / 정보엑스포 '96 조직위원회 사무국장

정보통신관련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국경을 초월한 정보의 유통이 활발해지고 다양한 정보의 교환과 검색을 통해 네티즌(Netizen)이나 지구촌(Global Village)의 개념이 정착되고 있는 시점에서 인터넷은 정보통신부기반의 하부구조로 뿌리를 내리고 있다. 또한 인터넷이 연결된 150여개국과 5천만명 이상의 사용자가 말해주듯 전세계는 정보의 즉시성과 유용성으로 민족, 종교, 문화, 사회, 경제, 정치의 벽을 초월한 21세기 새로운 세계관과 가치관이 출현하고 있으며, 정보사회에서 상품등의 물류유통에서 정보유통의 상품성으로 세계적인 인터넷을 통하여 국가, 기업등의 홍보뿐만 아니라 원격교육, 의료, 복지 등 새로운 응용서비스를 창출하고 사회문화적, 제도적인 변혁이 동시에 이루어 질것로 기대되고 있다.

인터넷 세계박람회 '96(한국에서는 정보엑스포 '96으로 명명)은 세계 60여개국에서 동시에 개최되는 지구촌 엑스포이며 네트워크를 통한 가상공간내에서 각종 이벤트가 열리는 Cyber EXPO이다.

한국이 지구촌의 일원이고 정보사회의 커다란 시험대인 정보엑스포 '96을 통해서 국가, 사회, 기업 등의 경쟁력을 높이고 통신의 기반구조를 한단계 올릴 수 있도록 정부가 추진하는 초고속 정보통신기반 구조의 차세대 시험장으로 제공되도록 정보엑스포 '96을 추진할 계획이다.

첫째, 전국에 산재하는 공공이용시설에서 이용자가 자유롭게 국내외 정보를 검색하거나 교환할 수 있도록 초고속정보통신기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제회선과 국내회선을 고도화 시킬 계획이다.

둘째, 정보엑스포 '96이 진정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외국의 정보에만 의존하지 않고, 국내의 멀티미디어 정보를 많이 개발하여 국가, 사회, 문화 및 기업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따라서 정보주체관(Public Pavillion)을 구축하여 정부 및 국가기관의 정보를 자유롭게 액세스 할 수 있도록 하며, 한국의 멀티미디어 정보 센터인 Central Park를 구성하여 96년 1월 1일부로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셋째, 국가, 사회, 문화, 체육, 오락 등 각 분야의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는 디렉토리 서비스를 개발하고 기업이 자사의 이미지, 기업문화 및 제품홍보 등을 통하여 실질적인 이득이 기업에게 주어질 수 있도록 기업테마관의 구축과 더불어 매월 이벤트 사업과 공식 참여 기관에게 도움이 되는 휘장권을 부여할 계획이다.

넷째, 전국민이 가능한 골고루 정보엑스포 '96을 향유할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100여곳 이상의 Public Access 를 만들어 자유롭게 인터넷을 통한 멀티미디어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등 전국적으로 균형되게 설치된 Public Access 장소에 가서 쉽게 인터넷을 사용하도록 하겠다.

또한 대도시에서는 인터넷 카페를 활성화시키고 정보엑스포 '96에 연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보엑스포 '96이 전국민의 축제인 동시에 지구촌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기 위해서는 민간기업, 학교, 언론 및 방송사, 연구소, 개인에 이르기까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홍보전략이 필요하며 산·학·연·관의 협조가 매우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정보엑스포 '96 조직위원회가 정식으로 가동되고 사무국의 업무가 개시되어 명실상부한 지구촌 시대의 리더로써 한국이 부상될 수 있도록 각계 각층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